

##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 축구 국가대표팀 분석가, 데니스 야시로 카마르고에게 들어본다

인터뷰 일시: 2014년 2월 15일 오후

인터뷰 장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 어느 카페

**서라연:**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데니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니스 야시로 카마르고 이와무라(Denis Yashiro Camargo Iwamura)이고 서른 여섯 살입니다. 현재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석사과정 공부와 병원에서 인턴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 가지려 계획하고 있습니다.(웃음)



데니스 코치  
(이미지 출처: 데니스 야시로)

**서라연:**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계기로 왔습니까?

**데니스:** 한국에 온 지는 3년 됐습니다. 처음 1년 차에는 대구FC 프로축

구단에서 수석 코치로 일했고, 2년 차에는 부산 아이파크 프로축구단에서 피지컬 코치로 근무했습니다. 올해는 3년차로 부산 아이파크 프로축구단의 피지컬 코치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모아시르 페레이라(MOACIR PEREIRA) 전 대구FC 프로축구단 감독님과 인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브라질 1부 프로축구팀 쿠리치바(CORITIBA)에서 수석코치이던 모아시르 페레이라 감독님과 함께 코칭스태프로 함께 일했습니다. 이후에 감독님은 네이마르, 간수(Paulo Henrique Ganso)와 같은 최고의 선수들이 포진한 산투스 팀을 맡았고, 저는 수석코치 및 분석가를 맡았죠. 그리고 모아시르 페레이라 감독님이 다시 대구FC 감독으로 부임하자 한국에 오게 되었고, 대구FC 프로축구단으로 입단하였습니다.

**서라연:**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끼신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요?

**데니스:** 한국에 대한 느낌과 인상, 그리고 한국 생활은 너무 좋습니다. 인상이 나쁘고 불편했더라면 벌써 브라질로 돌아갔겠죠?(웃음) 브라질과 한국은 교류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그리고 전쟁의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국은 브라질과 많이 달랐습니다. 음식은, 브라질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에 소금을 많이 뿌려 먹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한국은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소금 양으로는 브라질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웃음)

한국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브라질의 주식인 페이정(feijão)<sup>1)</sup>과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 콩을 푹 삶아서 죽처럼 걸쭉하게 먹는 브라질 음식으로 밥과 고기, 감자튀김 등과 함

두 음식 모두 콩으로 만든 요리다 보니 제 입맛에 잘 맞습니다. 매운 음식은 잘 못 먹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예절에 대해 깊은 인상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웃어른을 공경하는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질서 있고 예의바른 나라, 많이 발전된 나라, 뭐든지 굉장히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물건이 고장이 났을 경우, 신속한 애프터서비스가 좋습니다.

**서라연:** 한국인과 브라질인의 성격에 많은 차이가 있나요?

**데니스:** 성격이라 말하면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으로 나뉩니다. 당연히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족들도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 환경, 언어 등 많은 것들이 다르면 생각의 차이는 많겠죠. 하지만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은 브라질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라연:** 한국의 축구 문화는 브라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프로축구 등...

**데니스:** 브라질의 축구문화는 매우 열정적입니다. 브라질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축구를 보고 축구를 듣고 축구를 하고 축구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만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팀을 하나씩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팀을 향한 응원도 국가대표팀을 향한 응원과 관심만큼 뜨겁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축구를 사랑합니다. 한국처럼 많은 종목의 스포츠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국의 경우, 각기각색의 종목들이 한국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야구는 한국에서 축구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농구, 배구 역시도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많은 종목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런던올림픽

께 곁들여 먹는다 편집자 주.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  
(이미지 출처: 데니스 야시로)

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저 또한 한국의 스포츠 문화가 굉장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축구 역시 갈수록 리그의 질, 선수의 기량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뿌듯합니다.

**서라연:** 브라질 사람으로서 브라질의 월드컵 개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브라질월드컵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데니스:** 저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또한 브라질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은 지금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 과정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이라 시설과 서비스가 완벽히 32개국의 대표팀과 관광객, 국민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국민의 축구 사랑, 열정, 열기로 인해 단지 축구 시합이 아닌 재미있고 의미 있는 큰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라연:** 한국대표팀은 브라질 현지에서 전지훈련을 마쳤는데, 브라질 현지에서의 월드컵 분위기와 월드컵을 앞둔 브라질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데니스:** 브라질은 지금 월드컵 준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월드컵 이야기만 합니다. 최고의 시설로 월드컵을 맞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경기장과 같은 시설은 물론이며, 나라가 크기 때문에 각 대표팀은 시합이 끝난 후, 다음 경기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할 때는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제시간에 이륙할 수 있게끔 공항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원단, 관광객, 국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 교통수단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데니스:** 한국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면서 느낀 브라질이란 나라는 어떠한다고 하나요?

**데니스:** 모든 선수들이 브라질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과수 근처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너무 더워 지치기도 했지만 날씨가 좋았고, 한국 대표팀을 도와주던 브라질 스태프들 역시 저희를 잘 맞이해 주셨습니다. 비행기가 연착하지 않았더라면 선수들은 100% 만족하고 돌아왔을 겁니다.(웃음)

**서라연:** 한국과 브라질의 축구 스타일에 대한 코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데니스:** 브라질의 축구는 창의적입니다. 유소년 축구에서부터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은 세계 4대 리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선수들의 창의력과 유럽의 전술적인 부분이 합쳐져 최고의 대표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과 전술의 조화가 없으면 최고를 유지한다는 건 힘든 일이겠죠.(웃음)

한국 축구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남미 축구보다는 유럽 축구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또한 각 선수마다 최선 그 이상을 운동장에서 보여 줍니다. 이런 자세에는 옛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삶, 문화, 예절이 담겨 있습니다. 8회 연속 월드컵 출전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매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놓고 다퉃니다.

**서라연:** 한국대표팀의 분석가로 활동 중이신데,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대표 팀에 대한 코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데니스:** 제 생각으로, 한국 대표팀은 아주 기량이 뛰어난 팀입니다. 대다수의 젊은 선수들이 유럽의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기량을 펼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월드컵 이후 다음 월드컵에서도 같은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미래의 패기로 구성된 한국대표팀은 브라질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믿습니다. 한국 축구는 미래의 수많은 발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빅 클럽에 한국 선수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도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리그, K2리그, K3리그, 그리고 실업축구 리그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적자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서라연:** 그렇다면, 올해 한국과 브라질의 대표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선수, 기량, 전략 등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데니스:** 브라질 대표팀의 평균 연령은 27~28세입니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수들이지만 경험이 많은 선수들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유럽 빅 클럽 소속이며, 주축 멤버입니다. 모든 선수들의 경험이 모이면 차이점을 만들어 냅니다. 경기장 안에서 순식간에 결과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한국 축구팀은 가장 갖기 힘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

의 개인 기량과 신장도 뛰어나지만, 끈기와 투혼 그리고 정신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정신적 기술입니다.

**서라연:** 브라질에서는 한국 대표 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데니스:** 한국 축구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브라질 팀과 평가전 경기는 브라질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저희에게 너무 힘든 경기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골 넣을 찬스도 만들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도 한국 대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라연:** 개인적으로 어떤 나라가 우승할 것 같나요? 그리고 우승후보로 꼽는 이유도 말씀해주십시오.

**데니스:** 사실 브라질 대표팀이 강력한 우승후보입니다. 이유는 우선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좋은 선수만 가지고 우승하기는 쉽지 않지만, 유능한 코칭스태프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우승을 이끈 루이스 펠리피 스콜라리(Luiz Felipe Scolari) 감독과 94월드컵 우승을 했을 때,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던 카를루스 알베르투 페레이라(Carlos Alberto Gomes Parreira)가 기술고문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고의 코칭스태프들과 좋은 선수들이 훌륭한 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루이스 펠리피 스콜라리 감독은 강한 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라연:** 한국의 순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데니스:** 순위를 단정 지어서 말한다는 건 다른 나라 팀들의 노력들을 알아보는 것 같아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선수들과 감독님과 스태프들이 좀 더 좋은 성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1차 목표를 16강 진출로 정했습니다. 예선 통과 후에는 이미 세계16위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8강, 4강, 그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김민수 통역 및 번역]

---

데니스 야시로 카마르고 이와무라(Denis Yashiro Camargo Iwamura) - 부산 아이파크 프로 축구단 피지컬 코치이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김민수 - 부산 아이파크 프로축구단 소속 통역